

'건강한 전남교육 학교 공동체' 교장들이 이끈다

교육활동 보호·양성평등·도박 예방 등 리더십 함양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5~26일 화순과 순천에서 건강한 학교 공동체 조성교장 리더십 강화를 위해 도내 전체 교장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운영한다.

이번 연찬회는 교육활동 보호, 양성평등 교육, 도박 예방 교육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장이 중심이 되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학교 운영을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연찬회에서는 에듀피스 서정기 대표를 초청해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해결하는 리더십 특강을 마련했다. 아울러 ▲ 교육활동 보호 방안 ▲ 학

교 민원 대응 역량 ▲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실제 ▲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등 실질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심화 연수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제주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장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박예방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학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장은 "교장의 역



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찬회는 교육활동 보호와 갈등 대응, 양성평등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 교

육활동의 안정화는 교직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성호 기자

고흥군, 올해 다섯 번째 온기나눔 착한 기부의 날 운영

고흥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8개 팀 참여 2천만 원 기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올해 다섯 번째 온기나눔 고향사랑 착한 기부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온테크닉스 정현오 대표, 고흥군불링협회(회장 김봉필), ㈜우리기업 서명원 대표, 고흥군수산물발전연합회(위원장 고광남), 고흥HCI(회장 이진규), 우령각시 김호영 대표, ㈜에스엠테크 이경을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박희선 감사부장 등 8팀이 참여 2천만 원을 기부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였다.

군 관계자는 "전해주시 소중한 기부금은 고흥 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기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답례품 개발과 기부사업 발굴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고흥우주항공축제와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해 1억 8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6월 12일 열린 재경고흥군향우회 제23차 고향방문 행사에서는 향우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고흥을 응원하는 마음



이 이어지고 있다.

온기나눔 고향사랑 착한 기부의 날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전 국민 온기나눔 캠페인을 연계해 운영되며, 고향사랑기부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산축복꾸러미,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월 운영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완도군,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 엄숙히 거행

참전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 기억하며, 평화·자유 가치 되새기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완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경건한 분위기 속에 거행했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완도군지회장 손준성) 주관으로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후세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전 유공자 및 보훈 단체 회원, 학생과 군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참전 유공자 표창, 감사 선물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학생들이 유공자분들에게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6·25 전쟁 관련 영상 시청, 태극군 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6·25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다.

이범우 완도부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서 "숭고한 뜻이 잊히지 않도록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자라나는 세대가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품격 있는 보훈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불우이웃돕기 쌀 기증 '훈훈' 지난 20일 숭사량연합회 사무실에서 숭사량 감사 전순씨가 불우이웃돕기 쌀 10kg /이승원기자

110포를 숭사량연합회에 기증했다.



25일 HD현대삼호 지원관에서 열린 '계약생산 영암 멜론·수박 시식행사'에서 HD현대삼호 임직원들 비롯해 우승회 영암군수, 이재면 남주농협 조합장, 김병수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흑서기 협력사 근로자에게 여름간식 제공

8월 말까지 영암산 수박과 멜론 등 3억 3천여만 원 상당 지원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흑서기 무더위 속에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여름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HD현대삼호는 25일 회사 지원관에서 '계약생산 영암 멜론·수박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HR·총무담당 배재석 상무와 김병수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우승회 영암군수, 이재면 남주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흑서기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협력사 근로자를 위해 HD현대삼호와 사내협력사가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과 멜론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당도 높은 영암 멜론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HD현대삼호는 행사에 이어 협력사별 홍보 및 수량 취합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HD현대삼호는 오는 8월 말까지 사내협력사, 전라남도, 영암군과 함께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3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흑서기 온열질환 예방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과일 및 빙과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이번 HD현대삼호의 흑서기 과일 지원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더위 해소는 물론, 여름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협력사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간식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HD현대삼호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물론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임문희)는 06월 25일(수) 구례군 구례읍에 위치한, 독거 가구를 찾아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해당 가구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무너져 내린 천장, 파손된 창호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상의 문제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지사 직원들은 주방, 거실, 화장실 등에 대한 주택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자재 나르기, 폐기물 정리, 주변 청소 등 주변 환경 정리를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임문희 지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